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358.95 (+101.50)		780.72 (+43.3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740 (-0.002)		1432.5 (+2.70)

강남 집주인들 보유세 문의 빗발 관망세 뚜렷... 집값 하락은 ‘글썸’

현장르포

2026 세제개편안 반응

집주인들 공제액 등 민감하게 반응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않아
“강남 집값 크게 내려가진 않을 것”

#.“오전부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달라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팔아야 할지,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A공인중개업소)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도와 실거주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B공인중개업소)
#.“세금부담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대기 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C공인중개업소)

4일 찾아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초고가주택·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다.

대치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창문에 래미안대치밸리스 전세·매매 매물이 게시돼 있다. /성태리 수습기자

택 취득가격과 예상 매도가격,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뒤 상담이 잇따르면서다. 중개업소 측은 지난 2006년 10억원에 산 주택을 당장 33억원에 파는 경우와 2029년에 처분할 때를 가정해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꼭 채운 경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진다”며 “집주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보유기간 공제는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 폐지한다.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축소한다. 대신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도 퇴로를 열었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은 시가 40억~50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공제 한도가 줄어 양도세까지 늘어날 수 있다. (2면에 계속) /성태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수도권 집중, 모든 문제 뿌리”

정부 부처 업무보고... 지역투자 강조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4일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인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매일수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무디스, SK하이닉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Baa1 → A3)

수익성·현금창출력 개선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로 상향 조정했다.

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SK하이닉스의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 편입 이후 무디스로부터 A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서도 첫 A등급이다. 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BBB+에 ‘긍정적’, 피치는 BBB+에 ‘안정적’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생산능력도 AI용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범용 메모리 공

급 증가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메모리 가격 환경도 우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의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조정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약 65조원에서 올해 약 274조원, 내년에는 약 37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영업현금흐름이 설비투자 및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상당한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평가했다.

조정 기준 순현금 규모도 지난해 말 약 10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약 6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가 순현금 100조원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향후 12~18개월 동안 재무 여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메모리 산업 특유의 높은 경기 변동성과 지속적인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中 조선소, 친환경 이종연료 K-엔진 찾는다

운항 실적·신뢰성·유지보수 등 고평가
국내 선박용 엔진업체들 예상 밖 수혜

중국 조선소가 글로벌 선박 발주를 대거 흡수하면서 국내 선박용 엔진업체들이 예상 밖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중국의 완성선 건조 능력은 빠르게 확대됐지만 선박용 엔진, 특히 친환경 이종연료(DF) 엔진의 생산능력과 운용 경험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 엔진업체에 주문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조선업 3대 지표(건조량·신규 수주·수주잔량)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1% 급증했으며, 클락슨리서치 집계에서도 중국은 상반기 3100만CGT(1131척)를 수주해 세계 발주량의 72%를 차지했다.

업체는 중국 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급

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지 엔진 생산 능력은 아직 수요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에 탑재되는 DF 엔진의 수급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벌크선과 일부 유조선은 단일연료 엔진 비중이 높지만, LNG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은 LNG 또는 DF 엔진 채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DF 엔진은 전자제어 시스템과 연료 공급장치 등이 추가돼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생산 기간도 길다. 여기에 한국산 엔진은 운항 실적과 신뢰성, 유지보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요는 국내 엔진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HD현대마린엔진은 상반기 장수성 뉴양쯔조선 등 중국 조선소에서 엔진 공급계약 12건, 약 4900억원의 수주했다. 전체 공급계약 15건 가운데 74%에 해당한다.

한화엔진 역시 중국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보다 26.5% 증가한 5조2386억원을 기록했으며, 중국 조선소 비중이 49%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화오션(26%)과 삼성중공업(25%)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수주잔고의 약 85%는 DF 엔진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도 이종연료(DF)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선박그룹(CSSC)은 세계 양대 저속엔진 원천 설계사 가운데 하나인 WinGD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도 WinGD와 독일 에버렐런스(옛 MAN Energy Solutions)의 라이선스로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선박용 엔진은 선박 수주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주되는 구조다. 최근 중국 조선소가 확보한 선박 물량도 향후 엔진 발주와 매출로 순차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메트로 한줄뉴스



▲ 李 “10억 근로 소득은 절반이 세금, 100억대 부동산 소득은 몇억 불과”
▲ 김재원, ‘DJ 사저 매각 의혹’ 비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사진 뉴시스

▲ 與 전당대회 호남표심에 ‘사할’... 세제개편안 놓고 반응 엇갈려
▲ 정청래, 김민석 겨냥 “신천지 의혹 근거 못 대면 사과부터 해라”

▲ 유승민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더니 약속 뒤집어”
▲ 개혁신당 “정부·여당, 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내려야”

“하루 종일 고객 만나야”… 프랜차이즈업계, 생존공식 재편

소비 침체·임금 부담 등 한계 직면
직영점 중심 사업모델 재편 가속화
점심 등 시간대별 매장 활용 사활

프랜차이즈 업계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법제화라는 전방위적 삼중고에 직면했다. 한계에 다달은 고정비 부담을 뚫기 위해 업계는 특정 시간대에 치중했던 기존 영업 방식을 깨고 하루 종일 고객을 모으는 올데이 판매 전략과 직영 사업 다변화로 생존 모색에 나섰다.

최근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하루 종일 고객을 매장으로 유입시키는 시간대별 매장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간대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점심 매출 비중이 낮았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버거와 닭밥을 무기로 직장인 점심 시장을 적극 파고들고 있다.

bhc는 최근 서울 강남에 메뉴·공간·서비스를 결합한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아우르는 운영에 나섰다. 앞서 서초교대점 등에서 시



bhc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역점을 오픈했다.

/뉴시스

범 판매한 치킨버거는 점심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등 쓸쓸한 성과를 거뒀다. BBQ와 교촌치킨 역시 특화 매장을 중심으로 버거와 식사 메뉴 라인업을 강화하며 낮 시간대 공백 메우기에 한창이다.

반대로 점심 의존도가 높았던 버거 브랜드들은 오후와 저녁, 간식 시장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맘스터치는 치킨에 이어 피자까지 선보이며 가족 단위와 저녁 수요를 흡수하는 ‘올데이 외식 플랫폼’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으며, 노브랜드 버거는 커피와 과일 스무디 등 카페형 메뉴를 확대해 식사 외 휴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가맹 규제 강화 속에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직영사업과 가맹사업을 분리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전격 도입했다.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규제 강화 등 가맹사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본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직영점은 수익 구조를 통제하기 쉽고 가맹점 관련 이해관계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BBQ는 강남역 인근의 프리미엄 돈키호트·우동 브랜드 ‘우

쿠야 강남본점’처럼 점심 식사와 저녁 주류 수요를 동시에 잡는 플래그십 매장을 확대하며, 직영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이자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자구책 마련 속에서도 재반비용 상승과 규제 장벽은 외식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업계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설상가상으로 공정위가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만 모여도 정식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등록 단체가 광고·판촉비나 필수재료 가격 등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본사는 14일 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형 가맹 본부를 중심으로 신규 가맹 출점을 조이고 직영점 위주로 사업 모델을 재편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1면 ‘강남 집주인들…’서 계속

재건축단지 쉼법 복잡 임대차시장 불안 변수

현장에선 아직 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 아니다.

서울 서초구반포동의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이후 문의가 있었지만 집주인들이 비로 매물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며 “적어도 1~2주는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 1주택자의 부담이 특히 클 것”이라며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건 반발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의 살거주가 늘면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쉼법이 더 복잡하다.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반면 관리처분과 이주 시점에 따라 거주기간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고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늘어날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며 “고령 소유자 가운데는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가격대를 낮춰 이른바 ‘덜 뚝뚝한 한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마아파트를 처분한 뒤 삼성서울병원과 가까운 강남구 일원동으로 옮겨려는 수요도 나타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3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일원동의 구축 아파트 전용 75~84㎡는 28억~30억원대로 은마아파트보다 가격이 약 7억~9억원 낮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은마주민들은 투자보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살거주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매물이 쌓이게 되면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낮은 가격에 거래가 한두 건 성사되면 그 가격이 새로운 기준이 돼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강남 집값이 크게 내려갈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일정 수준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 핵심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도 풍부해 매물이 장기간 쌓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불안도 변수다. 양 전문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서 월세·판전세 전환이나 신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전경.

/성채리 수습기자

기후부,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 인하 중심 체계개편

신규 원전건설 등 공론화 절차 예고
김성환 장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해 인하하는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력의 적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격차, 송전선로 이용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오는 9~10월 중 초안을 마련해 국회 정기국회 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및 제조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중



국과의 가격 격차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킬로와트(kWh)당 120원, 우리나라는 180원을 쓰고 있어 중국과 산업 경쟁을 하기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며 “전기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숙제를 푸는 것이 기후부의 사명”이라고 진단했다.

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산업별 전기요금은 송전선로 이용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려고 한다”며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분야는 현재 전기요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올리고 지방을 낮추면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가 생길 수 있

어 최종 결정을 고려 중”이라며 “한전에 적자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전의 부담을 최소화할 별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8월 셋째 주 공청회 때 윤곽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갈등을 빚어온 동서울변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실제 전자파 영향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며 “대략 2달간의 시간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간에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며, 두 달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2차 전기본 9~10월 초안 마련…신규 원전 공론화 착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일정과 관련해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초안을 내고 정기국회 전에 확정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신규 원전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차 전기본 당시 원전 2기에 대한 정리가 졸속이라는 비판도 있

었다”며 “12차 전기본의 토론·공청회 방식과 횡수, 주제 등을 이번 주에 정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국민 공론화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에 대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섞지 않으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 시대 전력 폭증을 화석연료로 채울 수 없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를 석탄으로만 채울 수는 없다. 탈탄소가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다. 생각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양을 빨리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며, 2030년까지 100GW 목표에 ‘조기’를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 “민생부담은 여전히 높다”

데이터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국제유가 하락·칩플레이션 등 영향

국내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 등 물가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다 민생 부담도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과 6월에 3%대를 기록한 뒤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섰다. 미-이란 간 종전을 위한 휴전 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데 따른 국내 물가 하락으로 풀이된다.

국내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15.5% 올랐지만 전달인 6월(24.7%)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축소됐다. 휘발유(12.6%)와 경유(21.5%), 등유(20.5%)는 여전히 두 자릿 수 상승을 나타냈다.

또 이른바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컴퓨터(25.1%)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22.5%) 가격이 크게 뛰었다. 축산물(4.4%)과 수산물(3.9%)의 상승 폭도 비교적 컸다. 국산소고기(5.7%), 쌀

(7.9%), 수입소고기(8.7%), 달걀(7.5%), 고등어(7.0%) 등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여기에 국제항공료(21.7%)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보험서비스료(13.4%)와 해외단체여행비(20.0%), 자동차수리비(6.1%) 등도 크게 올랐다.

반면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1.0%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농산물 가격도 2.2% 내렸다. 전기·가스·수도도는 0.4% 올랐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1.4%, 3.5%, 외식 가격은 2.6%, 외식 제외 서비스는 4.1% 올랐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두원 경제동향심의관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락, 최고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며 “기상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7월 물가가 2%대로 재진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행일 재정경제부 제1 차관은 “상승세 완화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이 누적돼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민생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통신비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식품가격 등 물가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DDR4 역대 최고가… 삼성·SK, 메모리값 상승에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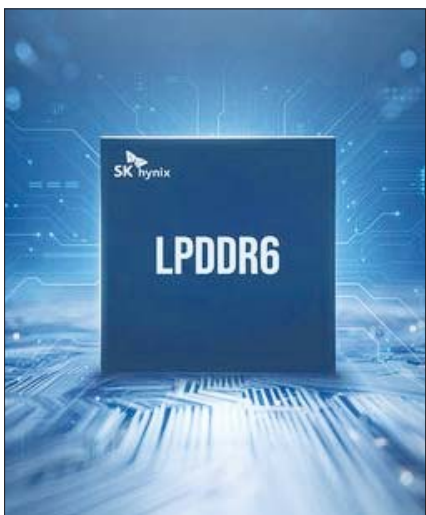
(4세대 D램)

PC용 DDR4 7월 평균 24달러
2016년 집계 이후 최고치 경신
낸드 30달러 돌파 GDDR7 상승
AI 서버 수요에 공급 부족 지속
2027년 D램·HBM 물량 선배정

PC용 범용 더블데이터레이트4(DDR4)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메모리 시장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그래픽 D램과 범용 D램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PC용 범용 DDR48Gb의 7월 평균 가격은 24달러로 전월(21달러)보다 14.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도 주요 공급업체와 PC 제조사 간 3분기 DDR4 계약가격이 전 분기보다 15~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45~50%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줄었지만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카드와 USB용 범용 멀티

레벨셀(MLC) 128Gb의 7월 평균 가격은 30.0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초와 같은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래픽드블데이터레이트7(GDDR7)도 가격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대만 경제일보(UDN)는 엔비디아가 GDDR7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그래픽카드 공급가격을 20~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가격 인상으로, 일부 고급형 제품에 적용됐던 가격 조정이 지포스 제품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GDDR7은 엔비디아의 최신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탑재되는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요 공급사다.

AI GPU와 고성능 그래픽 시장이 확대되면서 HBM에 집중됐던 메모리 수요가

그래픽 D램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그래픽 D램을 차세대 성장 제품군으로 제시하고 GDDR7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 IT 매체 디지털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최근 주요 고객사들과 2027년 D램과 HBM 공급 물량 배분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사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공급계약(LTA)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AI 서버용 메모리 물량은 대부분 선배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AI 기업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PC와 스마트폰용 메모리 공급은 이전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낸드 플래시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연간 공급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메모리 가격 강세는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HBM 판매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는 26%로 2위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은 25%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격차를 1%포인트로 좁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등락에 따라 업황이 좌우됐다면 최근에는 AI 서버를 중심으로 LTA가 확대되면서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채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AI 투자 기조가 이어지는 한 메모리 가격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전 실적 희비에도 '로봇' 육성 한뜻… 삼성·LG, 피지컬 AI 선점 경쟁

삼성, 완성품·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구미 생산거점서 휴머노이드 개발

LG, 액추에이터 앞세워 수익화
데이터 팩토리로 모델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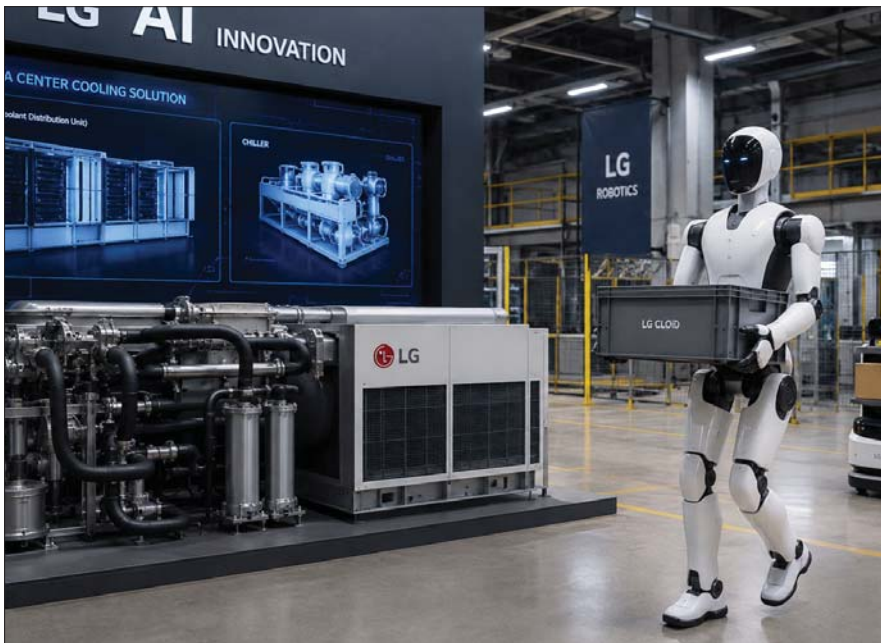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2분기 가전 사업 실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는 나란히 로봇을 낙점했다.

기존 가전사업의 원가 부담과 성장 한계가 커지는 가운데 완성 로봇부터 핵심 부품,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데이터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피지컬 AI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각각 로봇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가전사업 성적표는 엇갈렸지만 로봇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은 같았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디지털 어플라이언스(DA)사업부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영업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LG전자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과 로봇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전자는 생활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호조에 힘입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다만 양사는 실적과 별개로 컨퍼런스콜에서 로봇 사업을 공통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 '로보틱스경험(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며 로봇 조직을 확대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하드웨어와 AI·소프트웨어 개발, 상품기획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북 구미에는 로봇 생산 파일럿라인과 데

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서 확보한 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초기에는 제조·물류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한 뒤 가정과 서비스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용 반도체 시장도 함께 노린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저전력 메모리, 온디바이스 AI용 연산처리장치(XPU), 이미지센서,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연계해 피지컬 AI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완성 로봇과 반도체를 함께 키워 AI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도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중심으로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수익화를 추진하는 분야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다. 창원공장에 구축한 파일럿 생산라인에서 초도 물량의 양산성과 품질을 검증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국내의 로봇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수주 규모에 맞춰 양산체제도 구축한다.

완성 로봇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도 힘을 쏟는다. 하반기 가동하는

로보틱스 데이터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홈 로봇 '클로이'를 투입해 작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한다. 엔비디아와는 제조 현장용 로봇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LG AI연구원의 '엑시원', LG CNS의 소프트웨어, LG이노텍의 비전 센싱과 로봇 핸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계열사 역량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완성 로봇과 AI 반도체를 함께 육성해 피지컬 AI 생태계 전반을 공략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LG전자는 액추에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사업화한 뒤 완성 로봇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업체들이 AI 기능을 제품에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AI 가전이 현재 경쟁력이라면 앞으로는 로봇이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큰 만큼 핵심 부품과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유플러스, 보안기업 파고네트웍스 인수… 사이버 대응력 강화

24시간 탐지·분석 MDR 역량 확보
보안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전사 차원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파고네트웍스를 인수했다고 4일 밝혔다.

파고네트웍스는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운영형 보안 서비스(MDR)로 보안 역량을 쌓아온 보안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보안 운영 플랫폼 '딥ACT'를 바탕으로 다양한 탐지 툴과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국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 진출했다.

LG유플러스의 인수 목적은 전사 보안 대응 역량 강화다. 파고네트웍스의 MDR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내부 탐지·분석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보안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MDR은 기업의 보안 환경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탐지·분석해 대응하는 서비스다. 위협 탐지 기능에만 집중된 기존 보안 솔루션과 달리 직접 대응까지 수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 인력 확보를 줄이고 수준 높은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MDR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 유형이 고도화되면서 MDR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의 보안 시장도 성장세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답마켓 인사이트 조사 결과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75조원(2606억 달러)에서 2034년 약 1322조원(916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약 4조1600억원에서 약 14조2600억원으로 연평균 14.7% 성장이 전망된다.

기업 고객에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경

쟁력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유플러스 프리미엄 보안 관제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통합 인증 서비스 알파키 등을 제공해 솔루션 사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MDR 역량을 더하면 통합적인 보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보안·품질·안전을 기본축으로 제시하며 고객 신뢰 기반의 성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인수는 LG유플러스가 추진 중인 보안 중심 성장 전략과 관련한 첫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본사 전경.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향후 인증·네트워크 관제·위협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진 기자 msp09



이선주 체제 ‘인텔리전트 K-뷰티’, 中 넘어 북미 향한다



2분기 매출 1.6조, 영업이익 1028억
뷰티사업 부문 흑자전환 성공도
북미 매출, 전년동기비 47% 급증
中 매출 10% 감소, 북미가 앞질러

이 사장, ‘과학 연구 기반’ 비전 아래
5개 부문으로 포트폴리오 재구성

닥터그루트, ‘K-헤어’ 포지셔닝
유시몰·힌스, 日·아시아 공략 박차
더후·도미나스·LG 프라엘 등
기술 기반 고기능성 제품 강화



① LG서울역빌딩 전경. ②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닥터그루트’ 제품. ③ 유시몰 일본 팝업. ④ 더후 APEC 환유 국민세트, 레드닷 어워드 우수 패키지 디자인 수상작. /LG생활건강

③ LG생활건강



국내 대표 뷰티·생활용품 기업 LG생활건강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체질 ‘리부트(Reboot)’에 성공했다. 단일 럭셔리 브랜드와 중국 시장에 매여 있던 과거의 틀을 깨고, 독보적인 R&D 기술력과 북미 중심의 글로벌 다변화를 앞세워 실적 반등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6574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87.5% 증가했다. 특히 뷰티사업 부문은 매출8184억원, 영업이익 44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번 호실적에는 글로벌 성장의 지각변동이 주효했다.

상반기 누계 기준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조1253억원을 기록하며 전사 매출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렸다. 이 중 북미 지역 매출은 3739억원으로 전년대비 41.5% 급증하며 해외 매출 비중 12%를 차지했다. 3548억원에 그치며 10.0% 감소한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2분기 단일 실적으로 봐도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한 2058억원이다. 중국 매출 1760억원을 뛰어넘었다. LG생활건강이 독립 법인으로 분할된 이후 북미 매출이 중국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다원 진화론’ 인용한 이선주 사장…조직 개편으로 ‘네오뷰티’ 전면 배치

이러한 체질 개선의 구심점에는 올해 본격 가동된 ‘이선주 대표 체제’의 과감한 구조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0월 이선주 신임 사장을 공식 선임해 올해 이선주 체제 1년 차에 있다. 로레알 등 글로벌 뷰티 무대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이끌어온 이선주 사장은 신년사에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인용하며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단언했다. 단일 대형 브랜드에 의존하던 K뷰티 구조에서 벗어나 민첩하게 움직이는 포트폴리오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 사장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뷰티·건강 기업(Science-Driven Beauty & Wellness Company)’이라는 새 비전 아래 기존 조직을 ▲럭셔리뷰티 ▲더마&컨템포러리뷰티 ▲크로스카테고리뷰티 ▲네오뷰티 ▲HDB 등 5개 부문으로 재편했다.

특히 생활용품(HDB) 사업부에 속해 있던 프리미엄 두피 브랜드 ‘닥터그루트’와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을 고기능성 뷰티·헬스케어로 육성하기 위해 ‘네오뷰티’ 사업부로 전격 이관·통합시켰다.

이 포트폴리오 재편은 실적 숫자로 즉각 입증됐다. 2분기

뷰티 부문 내 브랜드별 매출 비중을 보면 더후 32%에 이어 닥터그루트가 8%까지 치솟으며 핵심 효자 브랜드로 부상했다. 더페이스샵 6%, CNP 3%, 유시몰 3%, 발리프 2% 등 차세대 브랜드들이 고르게 성장을 보였다.

◆ 닥터그루트·유시몰부터 힌스·LG프라엘까지…‘R&D 병기’ 앞세워 북미·일본 섭렵

브랜드별 세부 성과를 들여다보면 R&D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유통 채널 침투 전략이 돋보인다.

닥터그루트는 북미 시장에서 ‘K헤어’, ‘K탈모’라는 독보적 포지셔닝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세계모발학회(WCHR)에서 인공지능 기반 여성형 탈모 특화 솔루션인 ‘탐시탈’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과학적 신뢰도를 끌어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 및 인스타그램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까지 더해 소비자 접점을 늘렸다. 그 결과, 북미 현지에서 코스트코 매장 확대에 힘입어 8월부터 글로벌 뷰티편 집속 세포라 매장에 공식 진입한다.

유시몰과 힌스는 일본 및 아시아 시장을 맹공 중이다.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은 도쿄 하라주쿠에서 팝업 행사를 개최하는 등 SNS 콘텐츠로 브랜드를 확산시켰다. 메이크업 브랜드 힌스는 일본 대표 이커머스 쿠팡 메가와리에서 대표 제품 래디언스 유브이 파우더로 파우더 부문 1위, 베이스 메이크업 2위를 기록하며 MZ 세대를 사로잡았다.

더후, 도미나스, LG 프라엘 등은 기술 기반 고기능성 제품군을 강화했다.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는 아시아인 6만 명의 피부 유전자 연구로 완성한 3세대 천기단을 중국 상하이에서 공개하며 프리미엄 입지를 다졌다. 도미나스는 탄력·주름 등에 대한 기능성 제품을 갖췄다.

LG생활건강은 차세대 뷰티 테크 영역에서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뷰티 디바이스 ‘LG 프라엘’은 고출력 LED 집광 기술을 탑재한 미백 디바이스 ‘멜라빔 토닝’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확장했다.

◆ 단순 비용 절감 아닌 본업 경쟁력의 결실

LG생활건강은 올해 실적을 두고 일시적인 관세 환급 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체질 개선의 성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해외 유통 채널 재정비와 R&D 중심의 ‘인텔리전트 K-뷰티’ 전략이 결합해 구조적 체질 전환을 이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차별화된 R&D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북미와 일본 등 핵심 시장 및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해 K-뷰티의 재도약(Reboot)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이선주
LG생활건강
대표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환전?

KB스타뱅킹 공항에서 바로 터치 캐치

환전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니까
환전부터 간편하게 KB환전서비스

스타프렌즈 러기지택 증정 이벤트

기간 2026.7.20.(월) — 2026.8.31.(월) *경품 지급은 외화 현찰 수령일 기준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대상 3,000명 선착순 경품 랜덤 제공

- 01 KB스타(인터넷)뱅킹에서 이벤트 대상 통화를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전액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
* 이벤트 대상 통화 : THB, VND, CNY, TWD, PHP
- 02 수령 방법 선택 시 "인천공항에서 받기" 선택
- 03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며
"이벤트 알림톡" 제시

경품 스타프렌즈 여행용 러기지택 랜덤 증정(3,000개)
* 이벤트 기간 중 고객별 경품 1회 지급 (중복 불가) /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



이벤트 참여하기

최대 90% 환율우대

24시간 환전 신청

인천국제공항 어디서나 수령
2개 영업점, 7개 환전소(면세구역 제외), 7개 ATM

※경품은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없으며 준비된 경품 중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완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세구역(출국심사 후, 입국심사 전) 및 환승 고객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환전하신 외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환전을 신청한 본인 고객만 찾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불가).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환율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 시 적용한 환율 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이자 지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를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 그 외 기타통화 3%) ※비대면 환전 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광고물은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며 서비스 이용 전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융상품(서비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526호(2026.07.29), 유효기간 2026.07.29.~2026.08.31.까지

KB 국민은행

李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거부… “경찰 권한 보완은 필요”

“위헌·입법권 부정할 정도 사안 아나
수사·기소 분리, 사법개혁의 첫걸음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거부권 행사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제196조)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는데, 이 법률안이 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입법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날(3일)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법안 통과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또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

심 전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먼지떨이식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자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입법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변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改革)은 가족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정상화” vs “징벌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힘, ‘세금 폭탄’ 비판하며 철회 요구
민주 “국민의힘, 일부 내용만 부각”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똥똥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8년부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 중 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유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가 2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억원 수준까지는 보유세를 완화하며, 집값이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여도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에 국민의힘은 ‘증세 고지서’,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

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잡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집 가진, 집 없는 국민 모두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

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국 수석대변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집권 후 내놓은 실상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무차별 과세 폭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이라며 “전·월세 매물 실종과 주거비 급등으로 직결돼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며 “서민과 중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자신의 SNS에 “어제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조세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지금 장소를 섭외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원유 도입 다변화·비축 확대해야”

》 1면 ‘정부 부처 업무보고’서 계속

이어 원유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해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

하다.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산업부가 잘 해주고 계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주셨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격려하면서도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

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생에너지 등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또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한 달 만에 환율 127원 급락… 3분기 1400원선 하회 가능성

16일 거래일 연속 1400원대 거래
연준 금리 전망·당국 개입 등 영향
전문가들 환율 추가하락 분석 제기

지난달 달러당 1550원 수준까지 상승했던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했다. 미·일 양국이 공조해 원화와 동조성이 큰 엔화값 부양에 나선 가운데, 국내 외환당국에서도 환율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을 끌어 내렸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 등 달러 강세 요인도 일부 해소되면서, 원화값이 1400원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2.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2.7원 오른 수준이며, 지난달 14일 이후 16거래일 연속으로 1400원대에 거래됐다. 환율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1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 2일(1555.8원)과 비교해선 약 한 달 만에 123.3원(7.9%) 내렸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앞서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주간 평균은 달러당 1484.6원을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상반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7월 들어서는 주요 수출기업의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으로 환율 상승세가 꺾였지만, 지난달 28일까지는 과거 환율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1450원을 넘기며 고환율 국면이 지속됐다.

최근 환율이 추가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엔화값의 과도한 저평가를 우려한 일본과 미국 양국이 공조에 나서면서 엔화값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같은 동아시아 권역 통화로 분류되는 기축통화인 엔화값을 따라가는 경향이 짙다.

앞서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를 대항해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들였다. 달러당 160엔

을 연일 넘기며 급락한 엔화값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미 당국이 엔화 매입에 나선 것은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이다. 미국의 이번 개입 규모는 약 50억~1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미국의 환율 개입에 발맞춰 일본 외환당국도 환율 조정에 나섰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연일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섰다. 총 개입 규모는 11조~12조엔으로 추정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 3일 이번 조치가 미·일 양국 간 공조에 따른 조치라고 발표했으며, 환율 안정을 위해 추가 개입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일 양국이 엔화값을 의도적으로 부양하며 원화값도 상승한 가운데 국내 외환당국도 시장안정조치에 나서며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야간 거래에서 달러 매도 및 원화 매수 조치에 나서면서 환율 안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한 것 또한 원화값의

강세 요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6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2%를 밑돈 수준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및 소비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미·일 외환시장 공조 영향으로 원화값 강세가 뚜렷하고, 달러 강세 요인도 일부 해소됐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3분기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현상이 진정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반영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디스인플레이션의 가시화로 미 연준의 금리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슈퍼 앤저 현상이 주춤하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3분기 환율 전망치로는 달러당 약 140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금리 인상 기대감 고조… 은행, 정기에금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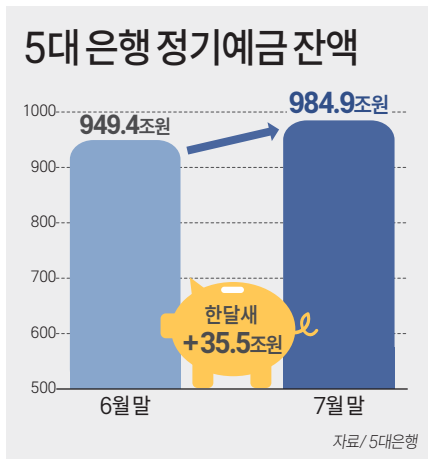
5대 은행, 한달 새 잔액 35조 이상 증가
고금리 상품 확대·증시 변동성 등 영향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한달 만에 35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연 3%대 정기예금을 내놓자 투자 대기성 자금은 줄고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84조939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정기예금 잔액은 949조3998억원으로 한달 새 35조5401억원 급증했다.

시중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옮겨간 배경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예금상품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

한은은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총재 sms 지난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물가 안정과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은 연 2.40~3.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은 연 최고 3.30% 금리를 제공했다.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과 우리은행의 'WO N플러스예금'은 금리를 연 최고 3.20%, 제공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 조달 수요가 더 급한 지방은행도 최고 연 3%대 후반의 고

금리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iM뱅크의 'iM스마트예금'은 연 최고 3.55%,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은 연 최고 3.76%를 제공한다.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단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연 3.81%까지 상당 금리를 올리며 시중의 뭉치돈을 끌어모으는 중이다.

증시 자금이 예금으로 이동하는 '역(逆)머니무브'도 강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120조836억원이던 투자자에탁금은 그달 말 104조1354억원으로 13.3% 감소했다. 장종 코스피지수가 5200선까지 밀리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증시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 예금으로 옮긴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선제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증시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투자 대기자금과 단기 부동산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JB금융, 하반기 경영목표 'AX 대전환' 제시

고효율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JB금융그룹이 하반기 경영 목표로 '전 그룹 차원의 질적 성장 및 AX(인공지능 대전환)'를 제시했다.

JB금융그룹은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사진) 및 전 계열사 경영진 150여명이 참여하는 '2026년 제2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손익 목표 달성 및 그룹의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은 “상반기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는 한편, 자신이 지속 성장하며 그룹의 구조적 이익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최근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전 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B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3857억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JB금융은 이를 위험기중자



산이익률(RORWA)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결과로 분석하는 한편, 전 그룹 차원에서 실질 이익이 확대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JB금융은 올 하반기에도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영업경비율(CIR) 우위를 지속하고 비이자이익 확대와 고효율 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지역금융 역할 및 기업금융 지원 확대, 지점 영업 강화, AI·상품 경쟁력 확대 등 하반기 5대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계열사간 의견을 타진하고 실행 전략도 논의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그룹 전반의 AX(인공지능 대전환)를 위한 특강과 세미나 등 다양한 AI 관련 세션도 진행했다.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JB금융그룹과 전략적 투자를 지속 중인 웹캐시그룹의 석창규 회장이 연사로 참여해 'B2B 금융 AI 플랫폼 활용 사례와 전자 생산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승진 기자

토스뱅크, 개발인턴 채용

토스뱅크가 두 자릿수 규모의 개발 인턴을 채용한다. 선발된 인턴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근무하며, 우수 평가를 받은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프리 인터뷰, 직무 인터뷰, 컬처 인터뷰, 합격 및 처우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학기를 수료한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가운데 신입 또는 경력 3년 미만으로, 6개월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나유리 기자

금융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고도화

전화·금융정보 공유 근거 마련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및 금융정보를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도입된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109% 증가

매출 3조9949억, 영업익 4879억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4879억원을 기록했다 4일 밝혔다.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수주 기대가 커지면서 연간 신규 수주 목표도 기존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높였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50억원에서 3630억원으로 큰 폭 늘었다.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2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3% 증가했다.

상반기 매출은 3조9949억원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

축사업부문이 2조665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토목사업부문 7433억 원, 플랜트사업부문 5115억원, 기타 연결 종속부문 7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진행 현장 수가 감소해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율 안정화와 건축사업부문의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규 수주는 7조12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보다 22.4% 증가했다. 상반기 말 수주잔고는 53조4019억원이다.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6년 치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HBM 주도권 잇는다… SK하이닉스, 차세대 HBF 표준 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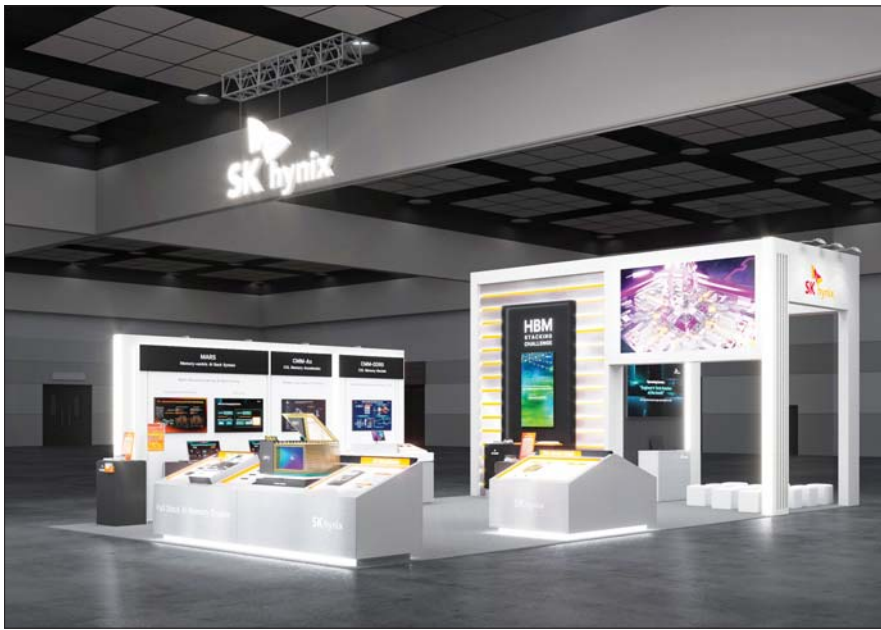
〈고대역폭플래시〉

샌디스크와 세계 첫 HBF 규격 공개
최대 512GB·초당 3TB 대역폭
AI 추론 메모리 병목 해소 기대
구글·텐스토렌트 합류, 2027년 양산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함께 차세대 AI 메모리인 고대역폭플래시(HBF)의 세계 첫 표준 규격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추론 시대의 최대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구조에 새로운 계층을 제시하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이후 시장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4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번 규격은 세계 최대 개방형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인 오픈컴퓨트프로젝트(OCP)를 통해 공개됐다. 업계 전반이 쓰는 개방형 표준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표는 4~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FMS 2026' 개막에 맞춰 이뤄졌다.

HBF는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것처럼 낸드플래시를 겹겹이 적층한



FMS 2026 SK하이닉스 전시 조감도.

/SK하이닉스

신개념 메모리다. 규격에는 최대 512기가바이트(GB) 용량과 초당 3테라바이트(TB)의 대역폭을 구현하는 기준이 담겼다. 적층 방식과 연결 인터페이스, 패키징 기준까지 규정해 서로 다른 업체 제품도 같은 생태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HBF가 부상한 배경에는 AI 연산의 무게중심 이동이 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축이 옮겨가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오래 보관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HBM은 용량이 제한적이고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진다. 반대로 낸드는 데이

터가 남지만 속도가 느려 그래픽처리장치(GPU) 연산에 직접 쓰기 어렵다. HBF는 HBM4(64GB)의 8배인 512GB 용량을 확보하면서 대역폭은 기존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크게 웃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샌디스크와 표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2월 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 이번 규격은 출범 약 6개월 만의 첫 결과물이다. 컨소시엄에는 구글과 AI 반도체 기업 텐스토렌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첫 양산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낸드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자체 HBF 개념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사업 계획 대신 관련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키옥시아는 5TB급 시제품을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시장 전망도 밝다. 신영증권은 HBF 시장이 2027년 10억달러에서 2030년 120억달러(약 16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옥 신영증권 애널리

스트는 "HBF가 상용화되면 낸드 산업에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 반도체 업황 개선과 수익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행사에서 HBF의 토대가 될 10세대 375단 4D 낸드도 처음 공개한다. 이전 세대보다 전력 대비 성능을 2.5배 높은 제품으로, 내년 초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용 SSD(eSSD) 양산에 착수한다. HBF 성능이 몇 단짜리 낸드를 쌓느냐에 좌우되는 만큼 적층 경쟁도 치열하다. 키옥시아는 332단 낸드 기반 eSSD를 상용화했고 삼성전자는 430단 10세대 V낸드 양산 라인 구축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격 공개를 계기로 AI 스토리지 시장에서 HBF 채택을 확대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천성 SK하이닉스 솔루션개발 부문장은 "HBF를 통해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경계를 확장하고 시스템 전반의 효율을 높ی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 아마존과 차세대 HDR 콘텐츠 첫선

프라임 비디오에 세계 최초 적용
밝기·움직임 보정 기능 고도화
2억5000만 구독자 기반 확보
돌비비전2와 표준 경쟁 본격화

삼성전자가 아마존과 손잡고 차세대 고화질 영상 기술 'HDR10+ 어드밴스드(HDR10+ ADVANCED)'를 적용한 콘텐츠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지난 1월 CES 2026에서 기술 규격을 공개한 지 7개월 만에 실제 시청 가능한 콘텐츠를 확보한 것으로 돌비의 '돌비비전2'와 맞붙은 차세대 HDR 표준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

4일 삼성전자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에 'HDR10+ 어드밴스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프라임 비디오는 전 세계 약 2억5000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플랫폼으로, 2017년 OTT 업계 최초로 'HDR10+'를 도입한 이래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양사는 이번에 적용 범위를 'HDR10+ 어드밴스드'까지 넓히며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HDR10+ 어드밴스드'는 '인헨스드 브



삼성전자가 아마존과 협력해 차세대 고화질 영상 기술 'HDR10+ 어드밴스드(HDR10+ ADVANCED)'를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 콘텐츠에 적용했다.

/삼성전자

라이트니스(Enhanced Overall Brightness)'와 '지능형 모션 보정(Intelligent Motion Smoothing)' 두 가지 기술을 축으로 한다. 기존 HDR10+가 장면별 메타데이터로 명암을 최적화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규격은 밝기와 움직임 표현까지 손보는 화질 보정 영역으로 발을 넓혔다.

먼저 인헨스드 브라이트니스는 장면별 최적 밝기 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톤 매핑' 기술을 활용해 TV가 가진 밝기 성능을 최대한 끌어낸다. 이를 통해 높은 휘도가 요구되는 콘텐츠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하게 구현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모션 보정은 장면별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프레임 속도를 변환 처리한다. 제작자가 의도한 연출을 유지하면서도 프레임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중계나 액션 장면처럼 움직임이 빠른 화면을 끊김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업계는 이번 협업의 의미가 기술 자체보다 콘텐츠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6년형 마이크로RGB와 네오 QLED, OLED, 더 프레임 등 프리미엄 TV에 해당 규격을 이미 탑재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콘텐츠가 없어 해당 기능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다. 결국 차세대 HDR 표준 경쟁의 승부처는 하드웨어 보급이 아닌 콘텐츠 물량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구독자 2억5000만명 규모의 프라임 비디오 합류로 삼성전자가 실사용 기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 구도도 뚜렷해졌다. 돌비가 지난해 IFA에서 공개한 '돌비비전2'가 라이선스 기반의 폐쇄형 진영을 구축한 반면, HDR10+ 진영은 별도 로열티 없이 개방형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민팅, 갤럭시 Z8 출시에 중고폰 보상 확대

내달 6일까지 '민팅 올 보상' 진행

ICT 리사이클 기업 민팅이 갤럭시 Z8 시리즈 출시와 함께 중고폰 보상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중고폰 거래 확대에 나선다.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ICT 자원 순환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실겠다는 전략이다.

민팅은 오는 9월 6일까지 민팅 ATM과 민팅 홈 서비스를 통해 중고폰을 판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금액 외 추가금액을 제공하는 '민팅 올(All) 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팅 홈페이지를 통해 '올 보상'을 신청한 다음, 이벤트 기간 내 민팅에 중고폰 판매를 완료하면 참여 가능하다. 갤럭시 S22~26 시리즈, 갤럭시 Z4~7 시리즈, 아이폰 14~17 시리즈가 대상이며 기종에 따

라 최대 5만원의 추가금액을 받게 된다. 상세한 기종별 추가 보상 금액은 민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팅 ATM은 생활권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형마트, 공공기관, 통신 대리점에 설치돼 있으며 5분가량의 짧은 시간만으로 중고폰 판매를 완료하고 평가금액을 당일 입금받을 수 있어 고객 호응이 높다. '민팅 홈'은 사전 배송된 포장 키트에 중고폰을 넣어 집 앞에 두면, 픽업해 매입하는 서비스로써 별도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중고폰 판매가 가능해 일상의 여유가 부족한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민팅은 고객의 휴대폰 교체 주기에 맞춘 '올 보상'과 같은 이벤트를 지속 진행함으로써 중고폰 거래 활성화와 자원 순환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금호타이어, 콘티넨탈 제품 더해 선택지 확대

타이어프로서 비교·상담·장착 서비스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브랜드와 손잡으며 타이어프로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글로벌 타이어 브랜드 콘티넨탈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 상무와 니코 카리아조폴로스 콘티넨탈타이어 코리아 교체타이어 부문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금호타이어 타이어프로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호타이어는 자사 제품과 콘티넨탈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고객 니즈와 차량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콘티넨탈타이어는 독일의 글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로 승용차부터 상용차 등 폭넓은 제품군을 갖췄으며 세계 주요 완성차 브랜드에 신차



금호타이어·콘티넨탈 MOU 체결. /금호타이어

용(OE)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콘티넨탈 제품 도입으로 고객들은 한 곳에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를 비교·선택하고 전문 상담과 장착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부문 상무는 "이번 콘티넨탈타이어와의 협력은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타이어 프로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9@

한화시스템, '우주 인재' 세 자릿수 채용… 20조 사업 본격 시동

초저궤도 위성·우주 AI센터 인력 확보
저궤도 통신·태양전지 등 전 분야 모집

한화시스템이 초저궤도 관측위성과 위성통신망,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우주사업을 이끌 전문인력 확보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우주사업부 경력사원을 세 자릿수 규모로 채용해 대규모 우주사업을 수행할 인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 하반기 우주사업부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한화그룹이 발표한 55조

원 규모의 국방 AI·우주 분야 투자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집 분야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과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위성통신, 위성용 태양전지, 위성 서비스 운영·영업·전략 등 우주사업 전반이다. 근무지는 모집 분야에 따라 서울사업장과 판교 연구소, 제주우주센터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대학 석·박사 학위 기간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다. 한화시스템은 우주 인재 채용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채용 홍보도 병행해 전문인력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3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담은 'AI 우주강국'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한화시스템은 이 가운데 약 20조원을 초저궤도 SAR 위성과 우주 AI 데이터센터,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호텔 숙박권부터 추가 데이터·중고폰 보상까지 혜택 풍성”

갤럭시 Z8 사전개통

통신3사, 사전예약 현황 분석 결과 시리즈 중 Z 폴드8 선호도 가장 높아 KT, 초이스 더블 요금제 경품 제공 SKT, 중고폰 반납 시 최대 100만원 LG U+, 사전예약 할인쿠폰 ‘인기’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 개통을 동시에 시작한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에는 콘텐츠 시청 활용도를 높인 ‘폴드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갤럭시Z8시리즈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다.

통신 3사가 사전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모델들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을 살펴보고 있다.

/KT

3종 중 ‘갤럭시 Z 폴드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을 접었을때 여권과 유사한 사이즈여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은 모델이다. 특히 각종 영상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4:3 화면비를 적용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통을 시작으로 통신 3사는 다양

한 혜택을 마련했다.

KT는 초이스 더블 요금제 가입 고객 중 총 888명을 추첨해 5성급 호텔 2박 숙박권, 신세계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초이스 더블 요금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또는 갤럭시 디바이스 등을 조합한 결합 상품이다.

제품 구매 후 기존에 쓰던 모델을 가족 구성원에게 물려면 최대 12개월 동안 데이터 월 2000MB를 제공하는 ‘가족폰 이어쓰기’ 혜택도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당 단말기에서 ‘사장이지’ 앱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선착순 3000명에게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갤럭시 Z 시리즈 단말기로 넷플릭스 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 연결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1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연계한 경품 혜택을 추첨을 통해 총 3055명의 고객에게 제공한다.

특히 ‘민트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폴더블 모델 구매 시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가족폰 나눠쓰기 부가 서비스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사용하던 기기를 만 13세 이하 자녀에게 물려주면 1년 간 매월 2GB 데이터 쿠폰, T우주패스 구독료

50% 할인(최대 6회) 혜택 등을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할인 등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전예약 기간 고객들은 공식온라인스토어 전용 혜택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온라인몰에서 사전 예약 즉시 지급한 할인 쿠폰 사용률은 전 시리즈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사전 개통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폰 반납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달 31일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프로모션 코드 입력 시 네이버 포인트를 최대 17만원까지 지급한다. 프로모션 코드는 사전알림 신청 고객 대상이다.

한편,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일반 고객은 갤럭시 Z 시리즈 정식 발매일인 8월 7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73개국 3만명이 찾은 ‘네이버 1784’… 전 세계에 AI 경쟁력 소개

업무공간서 운영·검증하는 ‘리빙랩’ 전시 아닌 실제 서비스 운영 실증 공간 글로벌 AI업계 주요인사 잇따라 방문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기술 쇼룸’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방문객이 3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곳에서 검증한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등 해외 사업으로 이어지며 네이버 AI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2022년 6월 개관한 경기 성남 제2사옥 ‘1784’의 누적 방문객은 최근 3만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73개국에서 방문했으며, 2400여 차례의 투어가 진행됐다. 하루 최대 방문객은 212명에 달한다.

1784는 일반적인 기업 홍보관과는 다르다. AI와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실제 임직원 업무 공간에서 운영하며 검증하는 ‘리빙랩(Living L



네이버 사옥 ‘1784’.

/네이버

ab)’이다. 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실증 공간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AI 리더들의 ‘필수 방문 코스’

1784는 최근 글로벌 AI 업계 주요 인사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도 자리매김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함께 1784를 찾아 AI 기반 스마트 빌딩과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을 직접 둘러봤다. 앞서 리사 수 AMD CEO도 방문해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응고지 오픈조이웨일라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 미국 국무부·국토안보부 관계자,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등 글로벌 정책·산업 리더들이 잇따라 1784를 방문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네이버의 기술 경쟁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1784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에서 일본까지…‘실증’이 곧 수출

1784에서 검증된 기술은 실제 해외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프로젝트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1784에서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직접 체험한 뒤 협력을 본격화했고, 이후 네이버는 주요 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는 스마트시티와 AI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1784에서 검증한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건물에 디지털트윈과 로봇 서비스를 접목한 첫 해외 사례로, 향후 AI 기반 빌딩 운영 플랫폼 사업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84에서는 현재 100여 대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Rookie)’가 음식과 택배 등을 배송한다. 로봇은 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로봇 브레인 ‘AR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되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Roboport)’를 이용해 건물 전체를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와 로보틱스 기술 고도화에 활용된다.

◆AI 팩토리 시대…1784 역할 더 커진다
네이버는 최근 엔비디아, 브룩필드와

함께 대규모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AI 인프라와 퍼지컬 AI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1784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84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과 정부 관계자가 AI를 직접 체험하고 협력으로 이어지는 ‘실물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사례를 보여주며 신뢰를 확보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글로벌 세일즈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IT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꾸준히 1784를 방문하며 실제 첨단기술과 공간의 융합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협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기술들을 도입하며 스마트빌딩 솔루션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넷마블, 日서 신작 3종 선보여…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

‘도쿄게임쇼 2026’ 참가

넷마블이 인기 지식재산권(IP)을 앞세운 신작 3종을 일본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흥행작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신작 흥행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TGS 2026에 참가해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펠 인 블루’ 등 신작 3종을 공개한다.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시연 버전으로 제공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한다.

넷마블은 올해도 기존 흥행작들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와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시 2년 차를 맞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상반기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확대와 외부 IP 활용 증가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신작들이 새로운 매출원으로 안정화할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TGS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다. 글로벌 흥행 IP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로그라이트 액션 RPG로, 원작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성진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선보인다.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도 일본 시장 공략의 핵심 카드다. 일본 누적 조회수 10억 회, 코믹스 누적 발행 1700만 부를 기록한 인기 IP를 기반으로 한 태그 교체형 수집 RPG로, 원작 팬층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감성 어드벤처 신작 ‘펠 인 블루’도 처음으로 현장 시연에 나선다. 넷마블은 장르와 이용자층이 다른 3종의 신작을 동시에 선보이며 다양한 글로벌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 가운데 나이자 콘솔과 모바일 게임 소비가 모두 활발한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 기반 IP의 영향력이 큰 만큼, 넷마블은 일본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와 체험형 부스를 통해 현지 팬덤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KT-연세의료원, 의료 AI 생태계 구축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등 수행

KT는 연세의료원과 의료 인공지능(AI) 생태계 리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보유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료 영상, 연구 데이터 등 의료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다양해 AI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 기관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데이터 표준화는 물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AI 학습·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업무 협약은 KT의 김봉균 엔터프라이즈 부문장과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진행했다. 의료 데



KT 김봉균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왼쪽)과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의료원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KT

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 AI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등 과업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햏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삼성·LG 등 잇단 신용등급 상향… 한국기업 경쟁력 재평가

글로벌 신평가, 재무 건전성 등 평가 삼전, AI 메모리 경쟁력 등 긍정 전망
삼성화재, 민간기업 최초 AA 등급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로 향후 2년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S&P는 향후 장기공급계약 및 맞춤형 제품 확대를 통한 사이클 변동성 완화가 확인되고, HBM 시장 입지 확대와 견조한 순현금 포지션이 유지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에서 'A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AA'는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S&P는 등급 상향 배경으로 견고한 자산·부채(ALM) 듀레이션 관리, 새 국제 회계 기준(IFRS17)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 우수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과 내부 자본 창출 능력,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선도적 지위, 글로벌 사업 확대에 인한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및 증시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상향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들이 S&P와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잇달아 'A등급'(A-, A3, A- 이상)과 '안정적'이라는 신용성적표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 불확실성이 몰아친 시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A'평가 잇따라

4일 신용평가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1월 LG전자 신용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올리고,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가 LG전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주요 재무지표가 개선됐고, 향후 1~2년 내 실적 반등에 따른 추가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LG전자가 자본 36.7%를 보유한 관계사 LG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LG전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비율이 2024년 2.4배에서 2025년 2.1~2.2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S&P도 지난 6월 LG전자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B

BB+'(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평가는 S&P에 앞서 무디스가 먼저 움직였다. 무디스는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지난해 1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지 10개월 만에 다시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이다. 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과 같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국제 신용평가사 S&P로부터 글로벌 신용등급 'A-'를 받았다. 국내 방산·항공우주 기업이 S&P의 글로벌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방산업체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록히드마틴, BAE 시스템스 등이다. 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한민국 최대 방산업체로 평가하며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주력 무기체계가 앞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나란히 신용등급이 기존 A에서 A+로 상향됐다. S&P는 한화손보가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시너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S그룹 지주사인 LS는 일본의 대표적 신용평가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로부터 'A0(안정적)'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자금 조달길 확대…글로벌 위상 ↑

국가 신용등급까지 매기는 3대 신용평가사 평가 등급은 장기 기준 S&P 22등급(AAA~D), 무디스 21등급(Aaa~C), 피치 20단계(AAA~D)로 나뉜다. 이중 A등급은 재무 상환 능력이 충분해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는 중상위 등급.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매출 영업이익률 등) 분석은 물론이고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시장 내 지위, 경영 투명성 등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따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을 높여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A등급을 받으면 대외 신인도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진다"고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및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지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의 가속제달을 밟아야 한다"면서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기업 돈줄 마른다… 회사채·IPO 동반 '냉각'

금리 급등에 은행으로 발길 돌려
IPO도 위축… 상장·공모 규모 감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증시 불안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자 한 톨이라도 이자가 싼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증권 기업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증권기업도 높아진 조달 비용이 부담인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한계 기업들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해 줄 도산에 처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8월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지주와 교보생명보험 정도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6일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보험(AA0)도 최대 4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예정된 회사채 수요예측 계획을 보면 은행 금융지주 및 대형 생명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크게 감소했다"며 "8월은 계절성

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기는 하지만, 올해는 예년 대비 발행 부진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회사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은 증권사들의 증거금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일부 기업은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다. 상반기 단기 회사채 발행이 990조 93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0조 295억원(90.4%) 늘었다. 특히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 회사채 규모가 441조 9403

억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CP 발행 금액은 45조 774억원(19.0%) 증가한 282조 7547억원에 달했다.

김 연구원은 "단기 금리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100bp 가량 높은 수준이고, 단기 금리 대비 회사채 조달 코스트가 높아 회사채 발행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회사채 투자 수요도 좋지 않아 발행 스프레드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한껏 높은 몸값을 부르며 화려한 IPO(증시 상장)를 기대했던 유망 기업들도 최근 주식 시장이 망가지자 자세를 낮추고 있다. 사업 자금이 당장 급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IPO에 나서고 있다. 기업공개(IPO) 건수가 작년 상반기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감소하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

141억원으로 4351억원(30.0%) 줄었다.

바이오 기업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 구간 하단인 1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스트라드비전도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 하단인 1만 2000원으로 확정해 증시에 상장했다. IPO 3수생인 박웨이브로보틱스는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초 2만 2000~2만 7000원으로 제시했던 공모가 희망 가격을 2만~2만 4000원으로 낮췄다. 그만큼 사업자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때 부도가 났어야 할 한계 기업들이 양적 완화로 생명을 연장해 왔지만, 자금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다"며 "구조조정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퇴직연금도 성과 경쟁… 한투증권, 3년 수익률 123%

올 상반기에만 5.6조 자금 유입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에서 3년 누적 수익률 123%를 기록하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우수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조 6000억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이 유입되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공시'에서 자사의 '적극투자형 BF1' 포트폴리오가 3년 누적 수익률 123.34%를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직전 분기 공시 당시 3년 누적 수익률 93.17%보다 성과를 더욱 끌어올리며 전체 사업자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51.49%를 기록해 증권(36.04%), 은행(33.04%), 보험(29.20%) 등 각 업권의 적극투자형 상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운용 성과는 퇴직연금 자금 유입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으로 유입된 퇴직연금 자산은 5조 66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유입액(4조 9300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증권업계 전체 퇴직연금 순유입액 33조 5400억원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

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6000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14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디폴트옵션 적립금 가운데 적극투자형(30.7%)과 중립투자형(25.4%)을 합친 실적배당형 비중은 56.1%를 기록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우수한 성과와 운용 역량을 갖춘 금융사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과 전문적인 자산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개인용 '오픈 API 서비스' 공개

국내·해외주식 시세 조회 등 포함

KB증권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Open API 서비스를 지난 7월 20일 오픈베타 형태로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Open API는 고객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외부 서비스에서 KB증권의 시세 조회, 주문, 계좌관리 등의 기능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

최근 24시간 글로벌 거래 환경이 확산되고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분석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API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분석하거나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기업 간 거래(B2B) Open API 사업에서 축적한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고객 대상(B2C)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API 투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오픈베타서비스는 국내·해외주식 시세 조회를 비롯해 ▲주문·정정·취소 ▲잔고 조회 ▲체결 내역 조회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API를 포함했다.

/신하은 기자

AI 대전환·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전력 인프라 확대

주요 부처 업무보고

**‘제1호 특구 짜르’ 지정해 규제 혁파
동반성장에 민간합동 5조 투입
‘전력감독원’ 내년 상반기 출범**

정부가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권역별 메가 특구를 조성하고, 전력·용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 **산업통상부, 메가특구법 제정… 127조 무역금융·제조 AX로 경제영토 확장**
산업통상부는 ‘조성장+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모토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제조업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달 중 권역별 성장엔진 3~4개를 확정 한 뒤, 300여 개 규제특례와 보조금이 담긴 ‘메가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 제정 후에는 ‘제1호 메가특구·짜르(Tzar)’를 지정해 인허가 통합 조정과 규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를 본격화한다. 재정·세제·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투입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 공급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제조업 AI 대전환(AX)도 가속화한다. ‘첨단 AI 팩토리’를 늘리고 휴먼노이드로봇 실증 및 6대 제조AI 표준을 개발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주 회사의 규제(중소회사 의무지분율 100%→50%)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한다.

전략품목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고,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해 공세적 통상협상에 나선다. 동반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민간 합동 5조원

을 투자하며,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재생E 100GW·물 10억t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대전환과 첨단 산단을 뒷받침할 ‘전기국가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 물 기반시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함께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한다. 해상풍력 25GW 확보를 위한 윈스톱 인허가도 가동된다. 원전 26기의 안정 운영 및 S

MR 검토와 함께, 전력계통 관리를 전담할 ‘전력감독원’을 신설해 내년 상반기 출범시킨다.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지방 이전을 위해 분산특구를 지정하고 서해안 HVDC 등 용통선로를 다각화한다. 2029년까지 2.3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도 구축한다.

반도체 펌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발전용·농업용 댐을 연계 관리해 가용 수자원 10억 4,000만t을 추가 확보한다. 국가 하천에는 AI CCTV를 배치해 실시간 홍수 방어망을 구축하고, 탄소다배출 5대 업종의 그린 전환(GX)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착을 이끈다.

◆ **공정위, 기술탈취 직권조사 확대… 과징금 재원 ‘피해구제기금’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술보호 감시관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법원 허가제를 폐지해 피해구제 체계를 선진화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영업정지뿐 아니라 지분매각·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도입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구조적으로 담합에 취약한 개별적 특성에 맞춰 보완적 시정조치 톨을 만들어 놓는 차원”이라고 설

명했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하고, 전속고발권을 부분 개편해 국민·지자체의 직접 고발권을 확대한다. 광역지자체에는 갑을 3법 조사·처분권을 부여한다.

◆ **노동부,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869만 비정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869만명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제공자를 포용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종합 지원하는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신설이다. 교섭권 침해 우려에 대해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교섭 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2월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를 패키지로 연내 입법 추진한다.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고위험 재해 반북 기업 183곳을 밀착 관리하며, 중대재해 위험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보장한다. 건설·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한다. 청년층이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을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유족 없는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기업 성과급 지침(8월 발표)을 통해 노사 갈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기부, 하반기 혁신창업가 1만명 키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목표
벤처→중견→글로벌 경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2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혁신 창업가 1만명을 선발한다. 상반기에 ‘창업도시’ 4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 안에 6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해 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 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 단체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4일 오후 하반기 대국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겸 제1차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선발 규모를 1차의 5000명보다 두배 늘린다. 이를 위해 신청 대상도 ‘창업 3년 이내 재창업’에서 ‘7년 이내 재창업’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4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을 창업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해 6곳을 추가, 총 10개 지역에 창업 인프라·문화를 조성해 창업 열기를 확산한다.

신안보(국방부·방사청), 제약바이오(복지부), 기후 테크(기후부), K-소비재(복지부·식약처), 인공지능(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타부처와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관련 분야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해 성장을 돕는다.

벤처기업→중견기업→글로벌 유니콘 성장 경로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등 벤처기업 특례 유지를 위한 벤처기업법을 하반기 중 개정한다.

한국·인도 정상간 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 인도 뉴델리 인근에 중소기업 진출거점인 가칭 ‘K-중기마루’를 추가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도약 패키지를 지원해 중기업·소기업 39만개 사 상위 1%인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키운다.

/김승호 기자 bada@

산업인력공단, KT와 AX 인재 양성 협력

공공기관 AI 전환 가속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KT와 ‘임직원 AI(인공지능) 역량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임직원의 AI 역량이 기초소양, 즉 ‘AI 리터러시’ 수준에 머물러서는 인공지능 전환(AX)의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단은 직원이 AI를 실제 직무에 적용해 성과를 내는 실무형 AI 역량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조직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울산 중구 소재의 공단 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공단 기획운영이사과 KT 동부법인과 고객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AI 교육부터 자격 취득, 직무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중장기 AX 역량 강화 ▲직무 맞춤형 교육 기획 ▲교육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개인의 AI 역량이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역량으로 축적되도록 AI 기반 업무 혁신 과제를 함께 발굴·적용한다. 또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해 나가기로 했다.

KT는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모델 ‘밀:음(Mid:eam)’과 AI 고객센터(AICC), AI 에이전트 플랫폼 등을 보유한 AI 전문기업으로, 경기도청·대법원 등 공공부문 AI 도입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해운·물류 혁신기업 발굴

‘1876 Busan’ 입주기업 모집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물은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2022년부터 해운항만 기술 혁신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인 ‘1876 Busan’을 운영해 왔다. 현재 12개의 창업기업을 지원 중이다.

입주기업을 선발해, 해운항만 분야에서 신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고 공사는 밝혔



부산역 인근에 자리한 창업지원 플랫폼 ‘1876 Busan’ /부산항만공사

다. 예비 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부터 약 3주간이다. 내부 서류심사를 거쳐 9월2일 대면평가를 진행해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유럽 간 K-푸드… aT, 수출 영토 넓힌다

‘한국형 팝업 편의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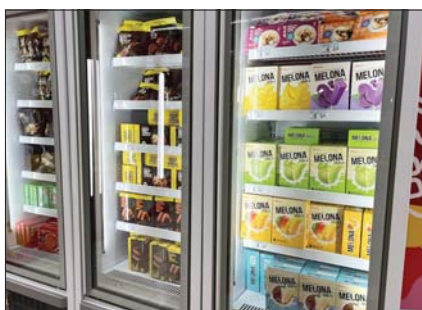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K-냉동식품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는 올해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베스트 K-푸드’ 사업과 연계돼 있다. 기능성·간편식품목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aT는 이달 8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에서 K-냉동식품을 주제로 ‘한국형 팝업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측전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넥스트 K-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넥스트 K-푸드 프로젝트 선정기업인 지엠에프(GMF)·루에랑(Lou et Lang)과 함께, 파리 교외의 마시 지역 소재 까르푸 매장에서 한국산 냉동식품을 선보인다.

매장 입구에는 한국편의점에서 착안한



프랑스 마시지역 까르푸 매장에 진열된 한국산 냉동식품 /aT

공간을 조성하고 냉동 쇼케이스와 진열대도 배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실 사립대, 자산·교원기준 완화 법인 해산 땀 잔여재산 활용 허용

구조개선 계획 이행 시 규제 특례
교원 확보율 최대 30%까지 완화
적립금 사용·자산 처분 제한 풀어
해산정리금·공익법인 출연 허용
폐교 교직원·학생 보상 근거 마련

경영위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고, 폐교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교구조개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에 맞춰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지원 특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재정진단과 구조개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영위기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가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며, 대학과 학교법인은 이행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은 교원 확보율 기준을 최대 30%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

선 조치를 마칠 때까지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출연할 수 없다.

학교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면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대학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모아타운 취소구역 안내 강화

구청 누리집·구보에 취소 정보 공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알려져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소구역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후보지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취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취소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

를 구축했다.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구역 내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주체가 없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후보지를 중개할 경우에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이현진 기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비둘기낭 폭포)

/경기도

숲·계곡·지질명소로 떠나는 여름여행

경기도, 자연공원 7곳 추천
도립·시립·군립공원 5곳 포함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도내 자연공원 7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공원 3곳과 천마산시립공원, 명지산군립공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화성 국가지질공원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숲과 계곡, 역사문화유산, 화산과 해안이 빚어낸 다양한 지질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울창한 숲과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성곽길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용추계곡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계곡과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깊은 숲을 품고 있어 반나절 산행이나 가벼운 숲길 걷기에 적합하다.

천마산시립공원은 해발 812m의 산세와 울창한 숲을 갖춘 산립 휴양지다. 호평동과 천마산역, 관리사무소, 가곡리 방면 등 다양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산행을 즐기려는 방문객에게 알맞다.

명지산군립공원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여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재인폭포, 비둘기낭폭포 등 독특한 지질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공룡알화석산지를 비롯해 제부도와 우음도 등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질·생태자원을 품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가족과 책 읽고 AI·과학 체험하세요”

서울교육청, 산하 23개 기관서 운영
온라인 낭독·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가족과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독서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와 연계해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가족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낭독과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강서도서관과 서대문도서

관은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낭독 프로젝트: 가족 책 소리’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참가 가족은 선정 도서 6권 가운데 한 권을 읽고 낭독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강서도서관은 ‘우리 가족이 GREEN 탐험대: 우리 가족 지구 밥상’과 ‘우리 가족이 순환 마켓’을,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세계 그림책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강남도서관(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 펜 과학창작소) ▲몽대문도서관(미래 상상 AI 창작소) ▲송파도서관(어린이 슬로리딩 여름학교) ▲노원평생학습관(별

책우주: 나도 천문학자랍니다) ▲종로도서관(청소년 독서동아리 청춘논단) 등이 운영된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독서와 과학, 인공지능(AI) 분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동작도서관(풍성한 삶을 위한 평생 책 읽기) ▲정독도서관(노벨문학 릴레이 독서챌린지) ▲종로도서관(고전을 쓰다, 오늘을 잇다) 등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Everlearning)’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논산딸기엑스포 민관 협력 본격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민간위원장 위촉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현 충남도지사·백성현 논산시장, 이하 조직위)가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위촉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과 홍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조직위는 3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민간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엑스포를 세계 딸기산업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

다. 조직위는 함 위원장의 풍부한 경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주 민간위원장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딸기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10명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는 충남 계통 출신 가수 길려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김준호, 논산딸기축제를 통해 ‘딸기왕자’와 ‘딸기요정’으로 사랑받아온 김은우·김정우, 논산 출신 가수 남궁진과 이채연을 비롯해 썬밸리로 학생 2명, 논산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논산(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양산 국내 관측사상 최고 42.5도

경남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겹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3일 기준 도내 전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14개 시군은 폭염중대경보, 7개 시군은 폭염경보, 2개 시군은 폭염주의보 단계다.

지난 2일에는 양산시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며 국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관측된 41.9도였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이 부문에서도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종전에는 2018년 경북 영천이 나흘 연속 40도를 넘

긴 사례가 최장이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18개 시군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하루 2회 이상 진행하고 마을방송과 드론, 가두방송 차량을 활용한 취약지역 안내 방송도 하루 3회로 늘렸다.

도내 무더위 쉼터 8200개소에는 냉방비 8억 2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쉼터 338개소는 운영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했다.

폭염과 함께 가뭄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556mm로 평년(853.8mm)의 65.1% 수준이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0.4%까지 낮아져 16개 시군이 가뭄 경계 또는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바질에 토마토를

REALLY?

버거를 더 맛있게

NAPOLINI!



By chef 나폴리 맛피아

나폴리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폭염 속 여름나기… “시원한 몰캉스 즐겨요”

〈쇼핑몰+바캉스〉

유통업계 여름소비 확산

무더위에 복합쇼핑몰 방문객 늘어
식사·카페·쇼핑 등 소비 이어져

주요 해변 인근 편의점 매출 급증
컵얼음, 아이스드링크 등 인기
계절성 소비 넘어 경쟁력 재확인

기록적인 폭염이 수도권까지 확산되며 장기간 조짐을 보이자 유통업계가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더위를 피해 복합쇼핑몰에서 휴식과 쇼핑을 동시에 즐기는 ‘몰캉스’ 수요가 늘면서 백화점과 쇼핑몰 방문객이 증가했고, 편의점에서는 얼음과 음료, 피서용품 판매가 급증하는 등 업체 전반에 여름 소비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된 폭염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 서남·동남권과 경기 오산·하남·여주서부를 비롯한 수도권, 광주동부·장성·보성·여수·광양·순천·곡성북부·곡성서부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것은 지난 6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진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무더위에 유통



시원한 쇼핑몰에서 외식과 쇼핑을 즐기는 몰캉스(쇼핑몰 + 바캉스) 고객들이 늘고 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고객들이 쇼핑과 함께 더위를 피해 몰려들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통업계는 이른바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더위를 피해 실내 복합쇼핑몰에서 쇼핑과 외식,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는 ‘몰캉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집객 효과를 키우고 있다.

롯데몰산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방문객은 약 45만 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만5000명이 찾은 것으로, 직전 주말(7월 25~26일) 방문객 42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도 같은 기간 약 22만 명이 방문했다. 이마트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장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했다.

더현대 서울도 같은 기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으며, 식음료(F

&B) 매출은 13.8% 증가했다. 무더위를 피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과 함께 식사와 카페 이용까지 이어가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편의점도 폭염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CU는 최근 일주일(7월 27일~8월 2일) 해운대·광안리·강릉·속초·양양·보령 등 주요 해변 인근 점포 매출이 전월 같은 기간보다 58.9%,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컵얼음 매출은 전월 대비 194.0% 급증했고, 아이스드링크(156.3%), 생수(140.1%), 기능성 음료(106.8%), 탄산음료(99.5%)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선케어 제품(317.9%)과 하절기 의류(364.3%) 등 피서용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GS25 역시 전국 해안가 점포 50여 곳

의 7월 매출이 전월 대비 26.5% 증가했다. 이온음료(96.5%), 얼음(84.6%), 과일(82.0%), 아이스크림(60.8%), 생수(54.1%) 등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세븐일레븐도 부산과 제주, 강릉, 속초 등 주요 해수욕장 인근 30여 개 점포의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42% 늘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폭염 특수가 단순한 계절성 소비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냉방 시설을 갖춘 대형 쇼핑몰은 ‘몰캉스’ 수요를 흡수하며 체류시간과 연계 소비를 확대하고, 편의점은 접근성을 앞세워 음료와 얼음, 피서용품 등 즉시 소비 상품 판매를 늘리는 등 업체별로 폭염이 새로운 매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이 최소 열흘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만큼 이러한 여름 특수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일상화되면 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시원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음료와 쇼핑으로 이어지는 연계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폭염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집객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삼양애니 불닭 캐릭터 IP ‘페포’ 공식 온라인 스토어

콘텐츠 감상, 공식 MD 상품 구매

삼양애니가 불닭 브랜드 캐릭터 ‘페포(PEPPO)’를 활용한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캐릭터 지식재산권(IP) 사업 확대에 나선다. 콘텐츠 플랫폼과 상품 판매를 연계해 팬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삼양리운드스퀘어 계열사 삼양애니는 불닭 브랜드 글로벌 캐릭터 IP ‘페포’의 공식 브랜드 스토어 ‘페포월드샵(PEPPO WORLD SHOP)’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페포월드샵은 지난 6월 문을 연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페포월드닷컴’과 연계된 온라인 스토어다. 팬들이 콘텐츠를 감상한 뒤 공식 MD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판매 제품은 페포 플러시 인형과 플러시 키링을 비롯해 수면안대, 모찌 스트레스볼, 반려동물용 살리콘 폼백 키링, 양면 답오 파우치 등이다. 오픈을 기념해 주요 상품을 10%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삼양애니는 페포를 불닭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IP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미국에 페포월드샵을 추가로 열어 해외 팬 대상 상품 판매도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CJ 비비고 ‘연어 스테이크’, 반년 만에 140만개 판매

탈라피아, 순살 고등어 레몬제스트
후속 프리미엄 제품군도 흥행 힘입어

CJ제일제당의 간편 가정간편식(HMR)인 ‘비비고 생선구이’ 프리미엄 라인업이 출시 초반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선보인 ‘연어 스테이크’가 지난해 12월 말 출시 이후 약 반년 만에 누적 판매량 140만 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출시 한 달 만에 10만 고지를 밟은 연어 스테이크는 최근 가파른 판매 가속화를 보이며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26만 5000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약 10초당 1



비비고 생선구이 프리미엄 제품군. /CJ제일제당

개꼴로 소비된 수치다.

연어 스테이크의 흥행에 힘입어 후속 프리미엄 제품군도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탈라피아’와 ‘순살 고등어구이 레몬제스트’ 역시 출시 초기임에

도 합산 누적 판매량 20만 개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이들 제품은 개당 9~14g의 단백질 함량을 함유한 고단백 프로틴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다. 별도의 손질이나 조리 과정 없이 샐러드, 파스타, 쌀밥 등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어 1인 가구와 식단 관리주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은 건강관리 트렌드와 맞물려 커진 프리미엄 생선 HMR 수요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

우선 배우 김남길과 전미도를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 캠페인 ‘무한 생선생활, 생선을 넘다’를 공개했다. 파티 음식이나 캠핑, 일상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선구

이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에피소드 형태로 풀어내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와 연계해 공식 온라인몰 ‘CJ더마켓’에서는 기획전이 진행된다. 행기간 내 관련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식기 브랜드 ‘오넨세’의 파스타 볼·쿠프볼 세트 및 CJ더마켓 적립금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쫓는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프리미엄 생선 HMR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원물 형태를 살린 구이류부터 오븐 구이 생선살 등 맛의 다양성을 넓혀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조아제약 리포좀 비타민C 1000 누적판매 8000개 돌파

출시 일주일 만의 성과

조아제약은 ‘리포좀 비타민C 1000’(사진)이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판매량 8000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총 24만 포에 달하는 수준으로 약 3초에 1포꼴로 팔린 셈이다.

리포좀 비타민C 1000은 막대형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한 포 당 비타민C 1000mg을 함유한다. 하루 한 번 섭취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0%를 충족할 수 있다.

비타민C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결합조직 형성과 철분 흡수에 필요한 영양소다. 특히 이번 신제품에는 리포좀 공법을 적용해 비타민C의 생체 이용률을 높였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고함량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속 쓰림 등 위장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물 없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구강용해분말 제형으로 처방했다. 무설탕 제품으로 당류 부담은 줄이고 과인애플 맛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 리포좀 전문기업 큐어써포트와 협업한 제품”이라며 “고품질 비타민C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코리아빌드위크서 ‘리바트 집테리어’ 선포

현대리바트, 모델하우스형 전시 운영

현대리바트가 국내 대표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서 토털 인테리어 솔루션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의 대표 제품과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현대리바트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Korea Build Week)’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리바트는 이번 박람회에서 주방·욕실·불발이장·벽지·마루 등 리바트 집테리어의 주요 리모델링 제품으로 구성된 모델하우스형 전시 공간과 맞춤형 컨설

팅을 제공하는 상담 공간을 운영한다. 대표 전시 제품은 벽·천장, 몰딩·도어와 동일한 색상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원톤 인테리어 전용 제품 ‘L500G’다. L500G는 색상뿐 아니라 공간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팬트리와 팻테이블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했다. ‘샘플 매칭 체험존’에서는 벽지·마루·주방 도어 등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를 직접 확인하고 조합해볼 수 있으며, ‘XR(확장현실) 체험존’에서는 선택한 자재를 가상 주거 공간에 적용해 시공 후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부광약품 ‘텍시드정’, 태국 독점 수출계약

퍼시픽 헬스케어와 ‘맞손’

부광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텍시드(성분 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가 수출길을 넓히며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광약품은 퍼시픽 헬스케어와 태국 방콕 퍼시픽 헬스케어 본사에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텍시드정’의 태국 독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퍼시픽 헬스케어는 태국 현지에서의 텍시드정 품목 허가 및 마케팅, 유통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부광약품은 제품 공급 및 허가 지원을 맡아 태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텍시드정은 부광약품이 2014년 출시한 알파리포산 제제 개량신약이다. 국내외 의학계에서 당뇨병성 신경염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로 권장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판매 중이며 베트남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는 “이번 태국 진출을 교두보로 당뇨병 유행률이 높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전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숲속

100

총자리집

©Toshio IWAI / KASEI SHUPPAN

2026. 7. 3(금) ~ 8. 17(월)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현대차 전동화 기술 통했다... 아이오닉 9,獨 평가서 우위

볼보 EX90 제치고 경쟁력 인정 받아
넓은 공간·뛰어난 활용성 높은 평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 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의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성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차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르트'가 실시한 전동화 럭셔리 SUV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 9이 총점 572점을 획득해 볼보 EX90 Twin Motor AWD(555점)를 17점 차로 앞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차체,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아이오닉 9은 특히 차체와 파워트레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차 2027 아이오닉 9 외장.

매체는 아이오닉 9에 대해 '6명이 탑승해도 여유로운 다목적 럭셔리 SUV'라고 평가하며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강점으로 꼽았다. 전자식으로 접히는 3열 시트와 최대 2494리터의 적재 공간, 2열 전동식 레그레스트 등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인 요소로 평가됐다.

직관적인 물리 버튼과 스위치, 빠르고 논리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키플레이, 스티어링 휠 패들을 활용한 회생제동 조절 기능도 호평을 받았다.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0초 만에 도달하는 성능과 부드러운 가속감으로 주행 성능과 승차

감을 모두 만족시켰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외에도 UV-C 살균 수납함,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충전 경로 안내 등 첨단 편의·커넥티비티 기능도 경쟁력을 높인 요소로 꼽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9이 독일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동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7329대가 인도되며 전년 동기 대비(3608) 두 배 이상의 판매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넓은 실내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감 등을 앞세워 글로벌 대형 전기 SUV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CJ문화재단, 음악 유학생 5명 선발

CJ문화재단이 올해 해외 음악 유학생 5명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공연장과 녹음 스튜디오 이용 등 창작 활동도 함께 지원해 대중음악 분야 인재 육성에 나선다. '2026 CJ음악장학사업 장학금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예성, 이민영, 유정현, 강성진. /CJ문화재단



롯데윌푸드, 1형당뇨병 환우 돕기

롯데윌푸드가 무선탄·무당류 디저트 브랜드 '제로(ZERO)'를 통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체장장애인협회와 함께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환우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이다. 롯데윌푸드는 '2026년 1형당뇨 가족캠프'와 '희망가방 프로젝트 3기'에 제로 브랜드 제품을 후원했다. /롯데윌푸드



하나금융,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혹서기 행복상자' 1300여 박스를 전국에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직원이 인천시 제물포구 소재 인천쪽방촌상담소를 방문해 행복상자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대한항공, 와인 평가서 5개 부문 수상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 서비스 평가에서 기내 와인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프리미엄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프리미엄 비즈니스 여행 전문 매거진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최한 '와인즈 온 더 링 2026'에서 총 5개 부문(1위 1개, 2위 2개, 3위 2개)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대한항공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디지털 메이커 교육 운영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의 창의 교육 인프라와 교육청의 지역 교육자원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창의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퓨처랩은 디지털 창의교육 프로젝트 '퓨처비 챌린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국타이어, WRC 무대에서 기술력 과시

'다이나프로 R213' 성능 입증

한국타이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랠리로 꼽히는 WRC 핀란드 랠리에서 극한의 환경 속 타이어 성능을 입증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 '2026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의 10라운드 경기 '핀란드 랠리(Secto Rally Finland)'가 지난 8월 2일(현지 시간) 핀란드 '이위베스퀼레'에서 막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핀란드 랠리는 316.04km에 이르는 20개 스페셜 스테이지로 진행됐다. WRC 일정 중 가장 빠른 대회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블라인드 크레스트와 좁은 산림 코스에 첫날 폭우까지 겹쳐 진흙탕·물웅덩이가 형성되는 악조건이 이어졌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회에 엑스트림 전천후 랠리용 타이어 '다이나프로 R213'을 공급했다. 다이나프로 R213은 급격히 저하된 노면 그립 속에서도 점프 착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물이 고



1위한 마르코 살미넨-사미 파야리(토요타).

/한국타이어

인 흙길과 산림 코스에서 강력한 접지력·조향 성능·내구성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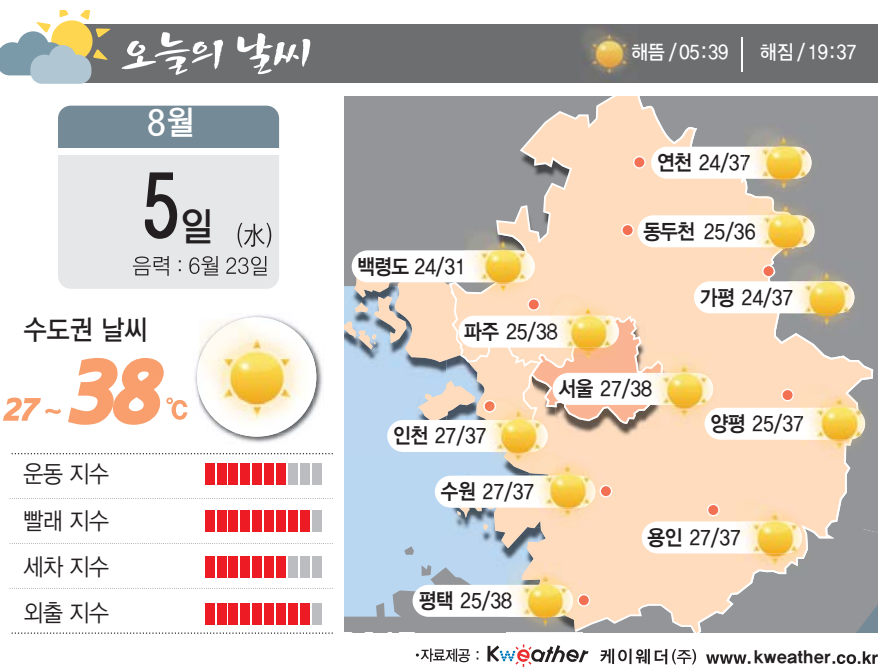
접전 끝에 '토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 소속 사미 파야리(핀란드)가 우승을 차지했다. 직전 에스토니아 랠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종합 2위로 올라선 파야리는 단독 선두 엘핀 에반스(201점)를 30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2026 WRC 시즌은 4개 대회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 11라운드는 8월 27~30일 파라과이 안카리나시온 일대에서 열리는 '파라과이 랠리'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장(서기관) 김인 ◆한국연구재단 ◇단장 선임 △국가전략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부이사관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서기관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송

지혁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실장급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부음 ▲이수만(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씨 별세=4일, 울산시 영락원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052-272-1111



벤처기업協 “기업가정신 되새겨야”

故 이민화 명예회장 타계 7주기 추모주간 지정, 온라인 추모관 운영

벤처기업협회가 이민화 명예회장(사진) 타계 7주기를 맞아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벤처협회는 4일 "최근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으로 벤처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도악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벤처기업인의 도전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기술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성으로 바꿔왔던 벤처 1세대의 도전정신을 오늘날의 벤처생태계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에서 협회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을 이명예회장 추모주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한다. 온라인 추모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민화 명예회장은 벤처기업특별법 제정과 벤처기업 육성 정책, 코스닥 활성화 등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벤처 1세대 기업인이자 벤처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벤처기업의 권익 증진과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헌신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아오츠카, 부산에 수분음료 1만개 전달

직접자사와 폭염 취약계층 지원

동아오츠카는 부산 지역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 중부·서부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신설된 최상위 경보 단계다.

부산은 이날 최고기온 38.8도를 기록하며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동아오츠카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함께 노인·아동 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카리스웨트 분말 1만개와 캔 제품 1500개를 지원했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 인력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가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오츠카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타이어뱅크, 소방히어로 52호 선정

국민 안전 지킨 정연우 소방교

타이어뱅크는 전국소방안전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52호 주인공으로 부산 중부소방서 정연우 소방교(사진)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소방교는 2019년 임관 이후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설비산업기와와



산업안전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문성을 높였고, 소방차 길터주기과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근절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정 소방교는 긴급 출동으로 감사장 전달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양성운 기자

변동성의 시대, 국가 경쟁력의 새 기준은



김희석

칼럼

며칠 전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를 관촬했다.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에 쓰인 작품이다. 21세기인 지금에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오만과 불안은 놀랄 만큼 낯설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인간보다 기술이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다. 사람은 달에 갔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며, 인공지능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사결정까지 돕는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지만 인간의 판단과 사회의 적응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인간은 더 많은 정보를 마주하고, 더 많은 선택 앞에서 흔들린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은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속도를 인간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잘 설명하는 단어중 하나는 '변동성(Volatility)'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시장이다. 최근 국내 증시는 하루걸러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 상승 국면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하락 국면

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연일 서킷브레이커가 걸리는 일도 벌어졌다.

투자자는 방향을 잡기 어렵고 기업은 투자시점을 결정하기 힘들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과감한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택하게 된다. 변동성은 투자자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비용으로 이어진다.

기후도 마찬가지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올 여름 유럽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고, 에어컨 없이 여름을 보내던 지역에서도 냉방시설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 역시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은 직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미·중 경쟁은 공급망을 흔들고, 관세와 지정학적 갈등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과거에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오래전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했다. 위험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그 확률조차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심에는 성장률이 있었다. 성장률이 높으면 성공이고 낮으면 실패라는 인식이 강했다. 성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만큼이나 변동성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기업은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고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정책이 자주 바뀌고 환율과 금리, 에너지 가격이 크게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게 된다. 소비자도 지갑을 닫는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는 도전보다 관망을 선택한다.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산업정책은 공급망을 다변화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정책은 탄소 감축뿐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도시 인프라와 전력망,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업은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투자한다. 국민도 제도가 일관될 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곤란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vbkim11@metroseoul.co.kr

‘기다림’에도 이유는 필요하다



허정운

(자본시장부)

A “국내 반도체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팔까 말까 고민이야.” / B “그래도 실적은 좋잖아. 조금만 버티봐.” / A “뭘 믿고?”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 속에서 투자자들이 던지는 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도 널뛰는 주가 앞에서는 무기력했다. 시장은 미래보다 불안에 더 민감했다.

AI 경쟁에서 투자를 늦춰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반도체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투자를 멈출 수 없다. HBM과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래도 없다. 하지만 시장이 미래 투자 이야기만으로 움직

이는 것도 아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청사진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특별배당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은 배당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앞으로 어떤 원천으로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주주와 성과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결국 투자자는 실적보다 '약속'을 보고 버틴다.

주주환원을 '투자의 반대말'처럼 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연구개발을 대신할 수는 없다. 반대로 연구개발이 배당과 자사주 정책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도 주주환원과 자본적지출이 모두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성장 산업에서는 투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주환원을 외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주주와의 약속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일본도 기업가치 제고 정책 이후 자사주 매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며 시장의 평가를 높였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도 늘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활용은 여전히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보다 기업의 태도를 본다. 좋은 실적은 한 분기의 성과일 수 있지만,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이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시장이 가장 흔들릴 때도 “이 회사라면 믿고 기다려볼 만하다”는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투자와 주주환원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기업의 미래와 시장의 신뢰를 함께 키우는 두 개의 축이다.

/zelkova@

김상회의四季

백중재와 환지본처



선덕여왕의 지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 불교적 세계관과 신앙으로 신라의 상류층들이 불교에 매료되어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선덕여왕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면서 인간이 죽어서 돌아가는 천상세계로서 도리천을 지명한다. 도리천은 불교의 육계 육천 중에 두번째 천상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석천왕이 주관하는 곳이다. 중국적 개념으로는 옥황상제인데, 인간들이 사는 세상 또한 통솔하며 만사를 주관하는 곳이다. 또한, 그 도리천이 바로 신라의 낭산(朗山) 남쪽이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사람이 죽어서 아주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뿌리인 하늘로 가는 것이니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순히 세속의 지혜에만 국한되지 않은 선덕여왕의 생과 사에 대한 초월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여왕이 언급한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감”이라는 것은 환지본처(還地本處)를 뜻 것이다. 내가 있었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함은 존재로서의 본성 즉 자성이 그 자체로 완전했던 그 점으로 합입됨을 의미한다. 선덕여왕은 한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삶과 죽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본래는 한자리임을 아는 그런 각자(覺者)였던 여왕이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원래 각자(覺者)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자각·각타(覺他)·각행 원만(覺行圓滿)의 세 덕을 갖춘 존재로서 곧 부처를 뜻하지만 세 간 격 의미로도 우주·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의혹과 번뇌를 버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 그래서 깨달은 이, 각자라고 불리는 존재를 뜻하다. 49재나 백중재 그것이 바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니 일곱 번이 어렵다면 초재와 막 재라도 올려보는 정성을 가져 보기를 앙망드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할일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토쿠

결합형 스토쿠 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9	8	9	9	8	1
9	8	1	2	8	9	6
8	2	1	9	6	8	9
2	9	6	8	1	9	8
1	9	8	8	2	8	9
2	8	9	6	9	1	2
8	8	9	1	1	6	9
6	1	9	8	2	8	9
9	2	8	9	8	1	2

1	9	6	2	8	9	8
2	2	8	9	8	9	1
9	6	8	8	1	9	2
1	8	9	8	9	2	8
8	2	2	8	1	9	9
6	9	2	1	9	8	2
8	8	6	9	2	9	2
2	2	1	8	8	9	6
9	9	8	2	6	1	2



첨단산업 육성
AI 대전환 등
국정역량 총동원
나



Life

유통업계
“더위 피해
물캠스 즐겨요”
L4



美 압박이 중국 자립 ‘자극’... 양산성·기술격차 극복이 관전

중국 첨단산업지도

⑥ 반도체

중국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세계 시장의 변방이었다. 해외 기업이 설계한 칩을 사들여 조립하는데 머물렀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자립에 성공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키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D램 매출 점유율은 삼성전자 38%,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각각 22%, 중국 창신메모리가 8%로 집계됐다. 창신메모리는 1년 전보다 점유율을 5%포인트 높이며 세계 4위에 올랐고 창장메모리의 낸드플래시 점유율도 같은 기간 8%에서 13%로 상승했다.

중국의 추격을 재촉한 쪽이 미국 트럼프 정부다. 미국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빗장을 걸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더 조였다.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를 구하기 어려워진 중국은 자체 생산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메모리와 AI 가속기를 넘어 제조 장비로도 국산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산 액침 방식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생산에 처음 들어가며 장비 분야에서도 자립을 향한 첫발을 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파고든 중국...창신, 누적 결손 해소 전망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먼저 나타난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다.

창신메모리가 상하이거래소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508억위안(약 10조6949억원), 순이익은 330억1200만 위안(약 6조95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의 약 3분의 2가 이익으로 남았다. 이 가운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247억6200만위안(약 5조 21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보다 90% 넘게 오르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창신메모리는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을 500억~570억위안(약 10조5395억원~12조 150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상대로 실적을 거두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결손 366억5000만위안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개발한 저전력 D램 ‘LPDDR5’.
/CXMT 홈페이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AI 규제

시점	규제조치	핵심내용	시행여부
2022년 10월	1차수출통제	A100·H100 금지	시행
2022년 12월	실체목록	창장메모리 등제	시행
2023년 10월	2차수출통제	우회용 A800·H800 차단	시행
2024년 12월	3차패키지	HBM 통제 신설, 장비 24종	시행
2025년 1월	AI 확산규칙	국가등급별 AI칩 배분안	2025.5 철회
2026년 1월	H200 조건부 허용	미국 출하량의 50% 이내로 제한	시행

자료/시드윈커뮤니케이션스

/ChatGPT

중국 반도체 산업, 국산화 범위 넓혀 미국발 수출 통제에 자체생산 가속

창신메모리, D램 점유율 8%로 ‘4위’
창장메모리, 낸드 점유율 8%→13%
D램 계약가격 상승, 실적 개선 영향
中 메모리 기업, 범용제품 시장 공략

H200 공급 제한에 화웨이 입지 확대 HBM 자체개발...생산능력은 제한적 노광기 등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가속 생산 돌입에도 선두권과 기술격차 여전

(약 7조7203억원)을 반년 만에 해소하게 된다.

상장도 마쳤다. 창신메모리는 지난달 16일 청약통을 통해 579억위안(약 12조2013억원)을 조달한 뒤 27일 상하이 쉹훙판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다. 주가는 개장 직후 472% 뛰었고 시가총액은 한때 약 3조3000억위안(약 695조3760억원)으로 불어나 중국 국내 상장사 가운데 1위에 올랐다.

AI 시장의 성장은 중국 메모리 기업들이 범용 제품 시장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제품에 투자를 집중했다. 낸드에서도 기업용 저장장치 중심으로 생산 전략을 옮겼다. 선두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면서 범용 제품 시장에 빈자리가 생겼고 중국 기업들이 이를 파고들었다.

HBM은 1GB를 생산하는데 일반 D램보다 약 3배 넓은 웨이퍼 면적을 사용한다. 기존 생산라인을 HBM 생산으로 전환할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D램 물량이 줄어드는 구조다.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감소한 범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

창장메모리도 2022년 말 미국의 실체목록에 올라 미국산 첨단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워진 이후 중국산 장비 비중을 늘리고 생산라인을 다시 구축하며 규제에 대응했다.

◆H200 반입은 극소량...화웨이가 빈자리 채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판매액의 25%를 미국이 받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중국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월 제3차 검사와 중국 판매량을 미국 고객 출하량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이를 규칙으로 확정했다.

판매 허용이 실제 공급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았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을 0으로 반영했다. 판매 하기는 받았지만 중국 반입 여부가 불확실해 매출 전망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출하는 지난달 들어서야 시작됐고 물량도 극소수에 그쳤다. H200 공급이 제한되는 동안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어센드 시리즈 AI 가속기로 빈자리를 채웠다.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AI 가속기 81만2000장을 출하해 중국 기업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중국에 출하된 AI 가속기 가운데 자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1%까지 높아졌다. 엔비디아는 55%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1년 전보다 낮아졌다.

◆HBM·노광기로 넓어진 국산화...기술 격차는 여전

미국이 2024년 12월 HBM과 관련 제조 장비를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중국은 HBM 자체 개발에도 나섰다. 공급망 관련 매체들은 창신메모리가 16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HBM3 샘플을 화웨이 등에 공급해 양산 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12년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창신메모리가 공시한 자금 사용 계획에는 HBM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창신메모리는 조달금 가운데 75억위안(약 1조 5890억원)을 웨이퍼 생산라인 개조에, 130억위안(약 2조7535억원)을 D램 기술 고도화에, 90억위안(약 1조9062억원)을 선행 D램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생산능력도 아직 제한적이다. 세미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말 창신메모리의 월간 웨이퍼 생산 능력 약 26만5000장 가운데 HBM용 물량이 5000장 안팎으로 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다. HBM 생산능력은 올해 말 3만장, 2027년 말 5만5000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 격차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3E와 HBM4를 양산하고 있지만 중국은 HBM3 개발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츠는 창신메모리의 기술이 한국 선두 기업보다 약 4년 뒤쳐진 것으로 평가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과 웨이퍼 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적층 수가 늘어날수록 생산 난도가 높아지는 만큼 12년 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수율 확보도 필요하다.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 가장 높은 장벽은 노광기다. 중국은 최근 처음으로 국산 액침 DUV 노광기 생산을 시작했지만 올해 생산 목표는 5대에 불과하다. 첫 생산 물량은 SMIC와 화홍 반도체, 창신메모리에 공급될 예정이다.

액침 DUV는 지금 중국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앞선 노광 장비다. 2019년 네덜란드가 EUV 수출 허가를 끊은 뒤 중국은 이 장비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기댔다. 보통 28나노급에 쓰고 다중패터닝을 붙이면 7나노급도 만든다. 다만 이 장비가 그만한 수율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시험도 남았다. 중국이 올해 5대를 목표로 하는 사이 ASML은 지난해 액침 장비 131대를 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계기로 메모리와 AI 가속기, 제조 장비까지 자립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생산을 시작한 것과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산 노광기의 생산 규모와 HBM 생산능력이 제한적인 데다 창신메모리의 실적 개선도 D램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향후 추격 속도는 첨단 공정의 양산성과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시즌 7·8호 홈런 작렬... 4타수 3안타 2타점 /사진 뉴시스
▲ 애틀랜타 김하성, 빅리그 복귀...시즌 완주 위한 경기력 회복 시급

▲ 올버햄튼 2부리그 강등에...황희찬, 여름 이적 시장서 커리어 ‘분기점’
▲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일정 확정...논란 속 ‘이민성 號’ 시험대

▲ 2025년 전북 현대 지휘봉 거스 포엣, 한국 대표팀 감독 채용에 도전장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 대표 선발 개입 의혹’ 무혐의